

## I. 國內外 經濟 概觀

## IMF의 96年 世界 經濟 展望

- (短期 展望) 올해와 내년도 世界 經濟 成長率은 開發國의 활황세에 힘입어 上昇하지만(96年 4.0%, 97年 4.3%) 物價와 金利는 안정세를 나타낼 전망임
- (長期 展望) 世界 經濟가 短期的으로 「安定속 高成長」을 이룰 展望이 지만, 美國의 쌍둥이 赤字, EU 국가의 財政 赤字, 東南亞 開發國의 經常 收支 赤字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世界 經濟는 혼란에 빠질 可能性이 있음
- (韓國 經濟 展望) 韓國 經濟는 前년에 비해 成長率이 다소 鈍化되는 가운데(96년 7.5%) 物價 上昇率은 상승할 것으로 展望됨

향후 2년간 世界 經濟는 대체로 物價와 金利가 下落하는 가운데 開發國을 중심으로 높은 成長率을 기록하는 「安定속 高成長」이 예상됨

世界 經濟의 短期的 好況은 外換 및 換率의 상대적인 安定에 起因함

○ (短期 展望) 올해와 내년도 世界 經濟는 成長率이 크게 上昇하는 가운데 物價와 金利는 下落하는 好況을 보일 展望임

- 96년과 97년의 全世界 平均 實質 成長率은 각각 4.0%와 4.3%에 이르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반면에 物價 上昇率과 金利는 하락할 전망임
  - 消費者 物價 上昇率은 선진국은 3%, 개도국은 5%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임
  - 주요 國際 金利인 유러 달러 金利는 95년의 年平均 5.6%에서 향후 5.5%로 하락할 전망임

○ (短期 展望의 根據) 이러한 樂觀的 展望은 그동안 世界 經濟 發展에 큰 負擔이 된 外換 및 換率의 불안이 최근 解消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됨

- 外換 및 換率의 不安을 겪었던 멕시코, 日本, 아르헨티나의 경제 회복이 세계 經濟의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임
- 엔高와 住宅 金融 混亂으로 일대 위기를 맞았던

日本은 金融 安定으로 回生이 유력시되고 있음

- 최근 세계 경제는 완전한 低金利 趨勢인데 이것은 세계 경제에 큰 好材가 되고 있음
- 일부 先進國들이 自國의 景氣 回復을 위해 시작한 金利 引下가 主要 國家間 換率의 안정 문제와 連繫되어 각국의 경쟁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지고 있음
- 순조로운 資金 需給과 物價 安定 趨勢가 이러한 低金利 趨勢를 더욱 加速化하고 있음

開途國들이 높은 신장세를 보일 것이나 日本을 제외한 先進國들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國家別 展望) 開途國들이 높은 신장세를 보이는 반면에 日本을 제외한 餘他 先進國들은 다소 부진할 전망이다

- 開途國 중에서도 특히 中南美 國家들의 躍進이 예상되며, 體制 轉換國들도 처음으로 플러스 成長을 記錄할 展望임
- 아시아 地域도 전반적으로 好轉될 展望이며 강력한 緊縮 政策을 쓰고 있는 中國 經濟가 가장 樂觀的임
- 先進國 중에서 日本은 沈滯에서 벗어나 다시 세계 경제를 主導할 것으로 예상되나 美國의 成長율은 2.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韓國은 成長率이 다소 鈍化되는 가운데(96년: 7.5%) 物價 上昇率은 상승할 것으로 展望됨

財政 赤字와 經常 赤字 規模의 減縮 등 均衡 成長 達成 여부가 장기적인 과제

○ (長期的 展望) 선진국의 財政 赤字와 개도국의 經常 赤字가 현재와 같이 계속 늘어날 경우 世界 經濟가 混亂에 빠질 우려가 있음

- 현재 先進國들은 財政 부문에서 엄청난 적자를 안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재정 적자 규모가 10%를 넘고 있는데 이는 1930년대 大恐慌

이후 최고 수준임

· EU의 通貨 統合이 각국의 재정 적자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음

- 開途國, 특히 東南亞 국가들은 經常 收支 赤字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향후 지속적 성장의 관건이 될 것임
- 韓國의 경우 內需 擴大로 인한 物價 上昇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內需 抑制 對策이 요구됨

(임 병 수)

<地域別·國家別 成長率 推移 및 展望>

(%)

구 분	94년	95년	96년	97년
美 國	4.1	3.3	2.4	2.4
日 本	0.5	0.5	2.5	3.3
獨 逸	2.9	1.9	1.7	2.4
프랑스	2.9	2.5	1.8	2.8
이탈리아	2.2	3.2	2.7	2.8
英 國	3.9	2.5	2.4	2.7
캐나다	4.6	2.4	2.4	3.3
G7 平均	3.1	2.5	2.3	2.7
유럽聯合	2.8	2.6	2.2	2.6
開途國	6.4	5.9	6.3	6.4
(아시아)	(8.7)	(8.4)	(8.1)	(7.7)
(韓 國)	(8.4)	(9.5)	(7.5)	( - )
世界平均	3.8	3.7	4.0	4.3

자료 : IMF 96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 II. 經濟 指標 포커스

## 1. 1/4分期 景氣 豫想보다 好調

- (動向) 1月 産業 活動은 民間 投資와 消費가 鈍化되고 在庫가 增加하는 景氣 萎縮 樣相이 持續되었지만 生産·投資 指標의 增加勢가 好轉되어 緩慢한 景氣 鈍化勢를 보임
- (展望) 1/4分期에는 豫想보다 好調를 보여 7.5~7.8%의 經濟成長率이 豫想되나, 2/4分期 이후 公共部門의 投資 擴大가 주춤해지고 輸出 鈍化勢가 持續될 경우 景氣 下落의 可能性은 常存함

민간 투자와 소비  
부문이 크게 위축  
되고 높은 재고  
증가세는 지속되  
었으나 생산·투  
자 지표가 호조됨

- (動向) 1月 産業 活動 動向은 民間 투자와 消費가 鈍化되고 在庫가 增加하는 景氣 萎縮 양상이 지속되었지만 生産·投資 指標의 증가세는 好轉되어 豫想되던 景氣 急落은 나타나지 않음
  - 지난 7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産業生産 증가율은 1월에 들어 전년 동월 대비 12.4%의 증가율을 기록, 증가세로 반전됨
    - 이는 작년과는 달리 설연휴로 인한 조업 단축(2일)이 없었다는 점에 크게 기인하는 것임.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생산증가율은 8%대에 그침
  - 지난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國內 機械受注는 34.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민간부문의 투자는 8.8% 증가에 그쳐 작년 1월의 28.3%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으나 기계설비 및 건설부문의 公共投資가 크게 증가함
    - 그러나 민간 제조업 부문의 투자선행지표가 되는 製造業 建築許可面積은 전달에 비해 85%의 급감세를 보였고, 민간 기계류수입액도 13%가 감소하여 민간 제조업 경기가 앞으로 후퇴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한편 도소매판매와 내구소비재 증가율이 각각 12월의 8.7%, 20.4% 증가보다 감소한 5.3%, 8.4% 증가에 그쳐 民間消費의 둔화 현상이 우려됨
  - 또한 在庫 증가율도 15.9%의 상승세를 보임

민간 부문 경기의 위축,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될 경우 경기 하락 가능성 상존

○ (展望) 民間 部門의 萎縮과 輸出 增加의 鈍化勢가 持續될 경우 景氣 軟着陸이 어려워질 可能性이 있음

-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 위축은 景氣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됨
  - 과거 경기 하강기에는 경기 후행적인 성격을 가진 민간소비가 경기를 뒷받침하는 성격을 띠었음
- 2월에 들어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되고 무역수지 적자도 증가하고 있음
  - 2월 수출은 전년 동월에 비해 17.2% 증가에 그쳐 1월의 30.7%에 비해 둔화세를 보였고 2월까지의 무역적자도 95년 전체의 1/3수준인 35억 달러에 달함
- 산업 활동 동향만을 살펴볼 때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최저 7.5%에서 95년 4/4분기의 수준인 7.8%(추정치) 수준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2/4분기 이후 경기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1/4분기 경기를 지탱하던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가 하반기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엔화 약세 등의 요인으로 수출도 둔화세가 심화될 것임
  - 공공부문 지출 확대도 하반기에 가서 물가 불안과 수입 증가때문에 제약될 것임 (이 보 성)

<주요 산업 활동 지표 동향> (%)

		1995					1996년
		연간	1월	상반기	하반기	12월	1월
생 산	생 산	11.9	9.2	13.3	10.6	7.1	12.4
	중화학공업	15.8	12.6	17.2	14.5	10.3	15.0
	경공업	0.9	-0.4	2.8	-0.9	-3.6	2.6
투 자	재 고	14.9	3.9	6.4	14.9	14.9	15.9
	국내기계수주	15.8	35.8	35.6	-0.4	-11.4	34.3
	기계류 수입액	27.0	22.2	40.1	16.5	3.2	45.2
소 비	도소매 판매	7.8	13.0	8.3	7.4	8.7	5.3
	내수용 소비재 출하	7.4	12.4	9.6	5.3	8.7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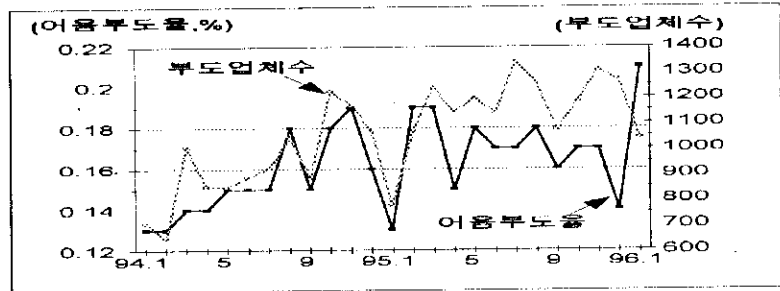
\* 재고는 기말 수치임

2. 어음不渡率 急增

- (動向) 96년 1월중 전국 어음부도율은 95년 12월의 0.14%보다 0.07%p 상승한 0.21%를 기록하였음
- (原因) 최근 어음부도율 급증의 원인은 경기양극화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함께 우성건설 부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評價) 시중 자금 사정이 풍부한 상태에서도 중소기업의 어음부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산업 구조 조정의 진행 과정에 따른 것으로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임

96년 1월중 어음부도율은 급상승하여 0.21%를 기록

- (動向) 전국 어음부도율은 94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95년 3/4분기 이후 다소 하락하여 12월에는 0.14%까지 하락하였으나, 96년 1월중 0.21%까지 상승하여 급반전되었음
- 1월달을 기준으로 할 경우 94년과 95년의 어음부도율은 0.13%를 기록하였고, 부도업체수는 94년 706 개, 95년 775 개보다 크게 증가하여 96년에는 1,038 개를 기록함
- 지역별 어음부도율은 서울이 0.15%이고, 지방은 0.59%를 기록하여 95년 12월 대비 각각 0.07%p, 0.04%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어음부도율의 증가는 경제 구조적인 문제와 우성건설 부도의 영향으로 파악됨

- (原因) 최근 어음부도율 증가는 경기 양극화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와 우성건설의 부도 때문으로 파악됨
- 최근 제조업의 경우 재무 구조의 취약성 등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재고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제조업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건설업의 경우 91년 이후 건설 경기가 침체된 반면 건설업체 수는 대폭 증가하여 업체간 과당 경쟁을 초래하고 있음
- 우성건설 부도(1월 16일)로 단기적이긴 하지만 전월에 비해 급격히 어음부도율이 증가하였음
  - 96년 1월 1일~1월 15일 사이에 0.09%에 머물렀던 서울어음부도율은 1월 16일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월중 0.18%까지 상승하였음
  - 1월중 서울 지역의 어음부도율에서 우성 건설 관련 부도 금액을 제외할 경우 0.1%에 그쳐 95년 12월중 서울 지역의 어음부도율과 같아짐

자금 사정이 호조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어음부도는 급증

- (評價) 최근 시중 자금 사정이 풍부한 상태에서도 중소기업의 어음 부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산업 구조 조정의 진행 과정에 따른 것으로서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96년 1월중 총통화증가율이 96년 관리 목표치인 15.5%에 크게 못미치는 12.5%를 유지하여 안정되었고, 장·단기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하여 시중 자금은 원활한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안정적인 성장 기조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내수 중소기업, 영세 도소매업, 건설업 등은 판매부진,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제조업 중심의 민간 부문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금융기관들은 외형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정책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우량 중소기업의 발굴에는 적극적이지만, 담보나 신용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에는 보수적
  -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과 같은 단기적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구조조정 차원의 업종 전환, 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김도균)

## 3. 貿易收支 赤字 急增 趨勢

- (動向) 올 들어 2월 말까지의 通關 基準 貿易收支 赤字는 35.7억 달러로 이는 通商産業部가 예상한 올해 무역 수지 적자 규모 70억 달러의 절반에 이르는 것임
- (原因) 엔低와 원高 현상의 持續 등으로 인한 日本 제품에 대한 相對的인 價格 競爭力 弱化和 市場 開放으로 인한 外國산 消費財의 輸入 增加가 무역 수지 적자 擴大의 주된 원인임
- (展望) 4월부터 外國人 株式 投資 限度의 擴大가 시행될 경우 원貨의 切上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무역 수지 적자의 확대 추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올 들어 貿易 收支 赤字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動向) 올 들어 2월 말까지의 무역수지 적자는 35.7억 달러로 前年 同期間보다(26.7억 달러) 34%나 증가한 것임
  - 올 들어 2월 말까지의 通關 基準 輸出은 199.4억 달러, 輸入은 235.1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35.7억 달러에 달함
    - 2월 중 輸出 增加率은 17.2%로 1월의 34.4%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음
    - 2월 중 半導體 수출 증가율은 26.7%인데 이것은 반도체 3社의 수출 증가율 目標인 7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임
    - 2월 중 輸入은 原油 및 油類 製品의 輸入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5.9% 증가하였음
  -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韓國銀行의 今年 예상치 80억 달러의 45%, 通商産業部의 예측치 70억 달러의 절반을 넘어선 規模임
- (原因) 貿易 收支 赤字의 原因은 엔低 현상에 따른 輸出 競爭力의 弱化和 世界 貿易 신장률의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市場 開放에 따른 소비재 수입의



엔低 현상으로 인한 輸出 競爭力 약화와 世界 景氣의 둔화가 무역 적자 확대의 주요 인입

증가에 기인함

- 작년 最大 輸出 品目이었던 半導體의 價格이 국제 시장에서 하락 추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하락함
- 엔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일본에 대해 상대적으로 輸出 競爭力이 약화되었음
- 原油 및 油類 製品의 關稅 引上(3%에서 5%)을 앞두고 관련 업체에서 수입 물량을 늘린것도 무역 적자 확대의 한 원인임

엔低 현상과 對美 元貨 換率의 하락으로 무역 수지 적자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

○ (展望) 향후 세계 경기가 더욱 萎縮될 전망이고 對美 달러貨 元貨 換率의 切上이 예상되므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큼

- 世界 무역 신장률이 鈍化되는 가운데 國產 製品의 수출 경쟁력 회복 요인이 없어 수출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됨
- 4월부터 外國人 株式 投資 限度의 擴大가 시행될 경우 對美 元貨 換率의 하락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資本 市場의 開放 擴大로 資本收支의 경우는 黑字를 견지할 것으로 보여 外換 不足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임 병 수)

<96년 2월 중 수출입 실적>

	1995. 1~2	1996. 1~2	1996. 1	1996. 2
수출	161.9	199.4	100.7	98.8
(증가율)	32.0	23.2	29.7	17.2
수입	188.6	235.1	120.5	114.6
(증가율)	32.5	24.7	34.4	15.9
무역수지	-26.6	-35.7	-19.8	-15.8

주 : 수출, 수입 및 무역수지는 통관기준임